

10 환자보상을 둘러싸고 짓소와 협상

【짓소가 제대로 죄를 갚게 하기 위하여 환자들은 어떤 협상을 해왔는가?】

국가는,미나마타병이 발생해서 12년이지난 1968년에 겨우 ‘미나마타병은 칫소공자의 폐수에 포함된 메틸수은에 의해 생긴 병이다’고 승인하고 공식발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짓소에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1969년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짓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973년에 환자측의 소송을 승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미나마타병 제 1 차소송)

일본의 법률에는 오염시킨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짓소는 정확히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여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여 국가와 현 짓소와 직 접 협상하기도 하고 국가와 현의 책임을 추궁하는 재판을 일으키기도 하여 그 후에도 오랜시간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